

### 1.2.1 print()의 결과

과세표준액 1 천만원 -> 세액 : 60 만원

과세표준액 4 천만원 -> 세액 : 427 만원

과세표준액 7 천만원 -> 세액 : 1158 만원

과세표준액 1 억원 -> 세액 : 2010 만원

### 1.2.2

먼저 matplotlib의 pyplot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figure라는 윈도우에 plot 그래프를 넣는 방식이다. 다시 말하면 figure는 레이아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.

1) plt.figure의 인자로 들어가는 'figsize'는 그래프 높이는 figure의 크기를 설정한다. 별다른 조속이 없다면 figure의 크기가 커지는만큼 그래프의 크기도 커진다. 단위는 inch 단위로 한다.

2) plt.tight\_layout()은 그래프(plot)의 모서리와 figure의 모서리 사이 공백을 만들어준다. 인자에 숫자를 넣지 않으면, default로 1.08이 들어가고 이때는 보통이다.

실제로 plt.tight\_layout(6)을 넣으면, 공백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, 특정 크기를 넘어가면, default값으로 적용되도록 제한을 걸어 둔 것으로 보인다. tight\_layout()에 대한 설명으로 "글자가 넘쳐서 잘리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함수"라고 쓰일새에 초점을 맞춘 설명도 찾아볼 수 있었다.

	figsize=(6, 4.5)	figsize=(4, 3)
tight_layout(0)	그래프가 크게 보이고, x, y label 잘보임	그래프작게 보이고, x, y label 잘보임
tight_layout(x)	그래프크게 보이고, x, y label이 보이긴하나 (6, 4.5)보다 공백이 작아짐	그래프작게 보이고, x, y label 잘보임

1.2.3

